



'74주년 맞은 광복절' 7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15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충북교육청 고3 무상교육 시행

도내 공·사립 총 84교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

충북도내 고3 학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2019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

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료 면제대상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 61교, 사립 21교, 방송통신 2교로 총 84교이다.

2019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2020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 7900원, 최저 5만 3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 2600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 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85억 2000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9일부터 시행되었다.

충북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경서 75억 6000만원 추가·1500명 일자리 창출

충북도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 확보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정부추경안이 국회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75.6억원(국비 37.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총 773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번 정부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매년 3월경 시작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1월에 조기 추진함에 따라 하반기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연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경사업을 통해 1500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기존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에게도 연말까지 사업

을 연장함으로써 총 8400여명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 공공시설 봉사와 경륜전수활동으로 이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원준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5.3% 증가한 25,674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에 대한 사랑은 시니어클럽 등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과 해당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초로기 치매환자 전문 프로그램 시범 운영

65세 미만 대상 인지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부적응 극복 목적

충북도는 치매관련 서비스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초로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금년 7월말 기준 충청북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만 5045명으로 이 중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는 3655명으로 등록 치매환자의 2.4%에 해당된다.

중앙치매센터 '2018 대한민국 치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의 9.7%가 초로기 치매환자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환자의 치료 및 돌봄 서비스는 노인 치매환자에 집중되

다보니 초로기 치매환자는 치매관련 서비스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부족한 초로기 치매 전문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초로기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이달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4회기 일정으로 진행한다.

초로기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현실감각훈련 정보를 이용한 오류배제학습이론과 시간차회화이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 등에서 겪고 있는 인지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부적응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치매환자 보호자가 가정에서 치매환자와 함께할 수 있는 나이도로 구성되어 프로그램 수료 후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초로기 치매전문 프로그램집을 발간·보급하여 초로기 환자들을 위한 치매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절차 완화

평일 이용시간 확대·기기값 최고 550만원까지

충북도는 지난달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8세 미만까지였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용 시간대도 종전에는 아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제는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

료급여기관이라도 2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 장애인보장구급여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충북도 의료급여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23일 첫 번째 아동학대예방 지정 결의대회가 진천군 화랑관에서 보육교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근절 자정 결의대회

29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서 릴레이로 진행

道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충북도-시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보유인 신뢰회복과 안심 보육체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안심보육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7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릴레이로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는 도-시군 어린이집연합회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된 행사다.

첫 번째 결의대회는 7월 23일에 진천군 화랑관에서 보육교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들은 아이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보유인 윤리선언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육교직원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평가 미인

증 시설과 0~2세 영아반 담임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주관한 임진숙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영유아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감과 인정, 격려 등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기, 부정적 언어 사용하지 않기 등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육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이 스스로 마련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효과는 물론 우리 지역의 아동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웰치과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정치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복대동) 마이크로병원 B/D 3층 T. 043-278-8100 F. 043-278-8006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어린이치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보험임플란트(65세 이상) 전문 치과 -



청주시, 1인당 복지예산 '99만7천원'

80만 주요 도시 중 '1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다섯번째

65억5천만원 투입…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청주시가 전국 80만 이상(특별·광역시 제외) 주요 도시 가운데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조403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전 체의 41.0%인 8365억4500만원

이다.

80만 이상 주요 도시 7곳 가운데 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고양시(46.5%), 부천시(45.8%), 수원시·성남시(42.3%)에 이어 다섯 번째지만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99만7000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지난해 보다 34곳 늘어난 노인여가복지시설 1061곳, 노인복지시설 133곳, 장애인복지시설 41곳, 아동복지시설 25곳, 여성복지시설 7곳, 부랑인시설 2곳, 정신질환요양시설 1곳 등 모두 1270곳이다.

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 357곳을 비롯 민간 263곳, 지역아동센터 76곳, 법인 49곳, 국공립 26곳, 직장 21곳 등 모두 792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를 보육시설에 사업비 65억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보조교사 624명의 인건비를 지

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원수를 70% 이상인 어린이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중장애인 6명 이상인 모둔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열린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이달부터 7개월간 보조교사 1인당 월 97만3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이다. 센터 1층에는 아이 돌봄실,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대여센터, 수유실, 카페, 물품보관실, 식당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2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음놀이 치유실, 요리교육실, 언어발달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3층은 다문화가족센터, 미혼모 새생명지원센터, 다문화 쉼터, 외국인 상담실 등으로 활용한다. 4층에는 회의실, 대강당, 청소년 동아리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다. 센터 1층에는 아이 돌봄실,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대여센터, 수유실, 카페, 물품보관실, 식당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2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음놀이 치유실, 요리교육실, 언어발달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3층은 다문화가족센터, 미혼모 새생명지원센터, 다문화 쉼터, 외국인 상담실 등으로 활용한다. 4층에는 회의실, 대강당, 청소년 동아리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센터를 가족 복지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구상

음성 치매안심센터 '안심등불' 선정

음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인 소이면의 소이우체국과 소이면의 용소방대를 치매 '안심등불' 기관으로 선정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가 있어도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난 5월 소이면이 음성군 1호 '치매안심마

을'로 지정됐다. '안심등불'은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친화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안심등불로 선정된 두기관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인식개

선 교육을 받아 주변을 배회하는 치매환자 발견 시 적절히 대응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순옥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구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치매 '안심등불' 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더욱 꽃 넓은 치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 진천읍 일원에서 실시했다.

활동반은 진천군 청소년팀,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진천경찰서,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5개 기관·단체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개선활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과 더불어 술과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생활화'와 청소년을 고용 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이 담긴 홍보 리플렛 및 물품 배포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활동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향상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2일에는 관내 학교 주변에서 추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천군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총력"

진천군, 민·관 합동 점검·환경개선 캠페인

진천군이 이번달 7일 여름휴가 철을 맞아 관내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

청주시, 120억원 투입… 가족센터 건립 시동

내년 착공·2021년 12월 준공 예정…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청주시가 다양한 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모충동 재활용센터 부지에 120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4

층 규모(연면적 4천500㎡)의 가족센터를 짓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개소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이 1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소 기념 커팅식을 하고 있다.

충주 친구청소년쉼터, 기부챌린지 성금 기탁

충주시 청소년들이 보여준 온정이 되어주고 있다.

충주시 위기청소년 생활·보호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7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응행입니다 -

진천군, 체계적 노인 복지사업 추진

고독사 예방추진단 구성… IoT안심케어 등 설치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15.9%인 진천군이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선제적인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송기섭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고독, 질병, 빈곤, 무위 등 4대 고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기에 따라 영역별로 나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주변 이웃들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독거노인 3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실태조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요양돌봄 의료 주거)를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한방진료, 올바른 복약지도 사업, 노인 맞춤형 주택개조(집수리) 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식사 배달, 스마트 홈 서비스 사업 등으로 2년간 약 42억원이 투입된다.

읍·면에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동네복지사를 강성해 어르신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한편 군은 노인층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48억원(추경 예산 포함)을 편성해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웰리와 만나는 원예치료', '자연친화 천연 제품 만들기' 과정과 배움의 시기 를 놓친 저작장애 1~2급 대상으로 '기초문해' 그리고 정서적 안정화를 위해 '아로마향기와 음악' 과정, 장애인 생활 자립 지원 및 인지 정서 소근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훈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가 지난달부터 2019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제천시,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제천시가 지난달부터 2019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창출 및 직업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은 장애인 거주 및 생활 또는 이용시설 등 5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학습 대상을 찾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익

증평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도내 지역의료기관 중 최초 지정…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회생불능 상태일 때 연명 의료 유보·중단 미리 밝힐 수 있어

증평보건소가 충북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최초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군 보건소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작성지원, 등록,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 의료 유보·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043-835-4243)로 문의하면 된다.

연영미 군 보건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증평군 아동친화도 전국 평균 수준 이상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1천500명 조사… 전 분야 평균 웃돌아 결과 토대로 2021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

증평군의 ‘아동친화도’가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지역 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학교 밖 아동, 미취학아동 부모, 아동관계자 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아동실태 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앞서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 및 정책기준 도출을 목표로 한다.

조사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긍정응답률이 전 분야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주거환경(90%)’으로, ‘교육환경(83%)’, ‘안전과 보호(59%)’, ‘놀이와 여가(58%)’, ‘보건과 사회 서비스(52%)’분야가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참여와 시민의식(26%)’도 전국 평균인 1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아동정책 수립을 본격화 해 2021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목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만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영동 황간면 복지소식지 ‘황사모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영동군 황간면 복지소식지 창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착한가게 소개 등 담아

영동군 황간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소식지를 창간했다.

최근 발간된 이 소식지 ‘황사모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복지 황간을 만들기 위한 황간면민의 복지관련 소식이다.

황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활동, 향후 협의체가 꾸려갈 사업,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착한가게와 후원자 현황 등 다양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식지는 감사의 뜻으로 그간 후원해준 착한가게 50개소와 후원자 및 착한가정 80세대에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 및 읍면동에도 배포돼 지역의 소식과 황사모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오봉 황간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돋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라며 “누구나 쉽게 나눔문화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며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성세제 황간면장은 “소식지에 담은 다양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복지사

각지대해소와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사모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반기별 1회씩 향후 지속적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영동 여성 안전·복지향상 ‘눈길’

무료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점검

영동군이 여성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영동군청, 여성회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영동읍사무소, 와인터널, 과일나라테마공원, 영동체육관 등 여성화장실에 비상용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총 7대를 설치했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

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며 유원지, 공원 등 공중화장실 몰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등의 공

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해 여성들

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해 여성 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텁지장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 한 카메라 불법 활용 막기 위해 영동군여성회관,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전화(☎ 043-740-3751)로 문의하면 된다.

하는 여성 공중화장실 10개소에 171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군민 모두

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카메라 설치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전화(☎ 043-740-3751)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치매안심센터는 마로면을 보은군 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7월 29일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정상화 보은군수의 적극적인 인의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이웃들의 관심과 돌봄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안전한 마을을 말한다.

이날 마로면 관리 산수경로 당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정상혁 보은군수, 김용선 군의회 의장, 군의원, 마로면장, 파출소장, 치매안심센터장 등 여러 지역 사회기관, 단체장 및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

괴산군, 사회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괴산군에 사회복지시설 ‘나눔 숲’이 조성된다.

‘나눔 숲’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나무를 심고 산책로, 쉼터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

자문으로 지난 5월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숲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나눔 숲을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할 수 있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용자가 심신을 치유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6일 인구 4만명 달성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6곳의 기관과 인구증가 릴레이 협약식을 가졌다.

괴산군, 인구 늘리기에 본격 팔 걷어

괴산경찰서 등 지역 6개 기관과 릴레이 협약 체결

괴산군이 인구 늘리기에 본격 팔을 걷어붙였다.

괴산군은 6일 군수집무실에서 인구 4만명 달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인구증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증가 릴레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괴산경찰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소방서, 농협중앙회괴산군지부, 괴산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괴산

결에 각 기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괴산군은 인구증가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괴산군은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증가 릴레이 협약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전 군민이 인구감소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 마로면 1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보은군치매안심센터가 마로면을 보은군 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7월 29일 선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마을 사업안내, 안심마을 현판 전달 등이 진행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주민 및 지역의 다양화 보은군수, 김용선 군의회 의장, 군의원, 마로면장, 파출소장, 치매안심센터장 등 여러 지역 사회기관, 단체장 및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

트너양성,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제작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SSN 치매예방프로그램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 대폭 강화

●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수과목 14→17↑… 선택가능 교과목은 27개로 증가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의무… 2020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 정 교과목을 추가해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과 현장실습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과 학점 기

준이 강화된다.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

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아울러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 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

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기관 선정과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 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본격화

노후주택 매입후 매월 연금 지급… 청년·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활용

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청희망자는 주택매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연령을 기준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 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내년 6→16곳 확충

청소년 위원 구성, 정책 수립과정 참여 활성화 논의
쉼터는 '수요자 중심' 통합·개편… 맞춤형 지원 강화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를 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거 확충하고 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위기에서 처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쉼터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할 계

획이다.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했다.

거리 상담 전문 요원을 확대 배치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합해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한다.

거리 상담 요원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90명, 내년 124명으로



늘린다.

자립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현재 6곳에서 내년 16곳으로 확충해 19~24세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

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영화관·대형서점·놀이 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소지자 우대 혜택을 늘리고, 유튜브·웹툰·지하철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청소년정책 분과위원회를 2개(청소년참여·정책협의)에서 3개(청소년참여·청소년활동·청소년안전망)로 개편하는 안건도 논의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3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6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된다.

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부 수급자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이 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급자가 지원금으로 40여만 원짜리 계임기를 사고 노동부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불성실히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으로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나 4월이나'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 6182명으로 제도 도입 당시 423만 8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청년구직지원금 수급 조건 완화된다

나이 등 기본 요건 충족시 지급… 월 50만원·최대 6개월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

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졸업 이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

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

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

상자에게 통학비·치료비·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I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I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노후보일리교체 주방개선사업 후원·전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6일 후원 전달식 진행

저소득 장애인 가구 6곳·긴급사례 가구도 지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6일 서청주로타리를 럽(회장 윤산 이경희), (주)우영스톤(대표 정현균)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노후보일리교체 사업 및 주방개선사업(씽크대설치)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노후보일리교체 사업은 서청주로타리를 지원으로 장애인 단체 추천을 통해 노후보일리교체가 시급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 6곳을 선정하여 300만원 상당 보일리교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주방개선 씽크대설치 사업은 (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서청주로타리를 럽·(주)우영스톤과 함께 저소득 가구 노후보일리교체 사업 및 주방개선사업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열었다.

노후보일리교체사업은 경제적 사유로 인해 동절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보일리를 교체해 줌으로써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방개선사업(대리석 씽크대, 식탁)은 현재 (주)우영스톤 지원으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에서 진행중인 해피하우스 사업에 추가로 청주시지부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방개선사업 중에서도 가장 욕구가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주거환경개선 연계 사업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마련한 '또래 톡톡(Talk Talk)'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위한 '또래 톡톡(Talk Talk)'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친구들에 먼저 다가가 도움주는 청소년들로 구성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고미숙)는 충주시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또래상담자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주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25개교 430여명의 청소년들이 또래상담자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학교폭력예방 및 또래상담자 소진예방 '또래 톡톡(Talk Talk)' 프로그램은 상담기법 안내를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소진예방 캠프활동으로 진행됐다.

고미숙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 및 전화접수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상담, 집단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원대-청주복지재단, 복지 발전 MOU

복지교육협조·정보교류·공동 연구 수행 등

서원대는 5일 청주시청에서 청주복지재단(이사장 한범덕 청주시장)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 한범덕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직원·학생에 대한 복지 교육 협조, 지역복지 활성화 및 연구업무를 위한 제반 정보 교류,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 발굴 등의 공동 협력과 복지 현안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동 연구 수행 등이다.

손석민 총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서원대는 지역 사회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연중 추진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 주시센터(유육원센터장)는 지난 6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주제 별기획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초기 양육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본 사업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4개월 여성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아 발달 측진

프로그램 제공(신체·정서지원),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케어모니터링단 파견, 임산부 가정방문 멘토링단 파견, 임산부 신체·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로, 다문화, 여성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은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양식은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주센터(☎ 043-232-0890)로 하면 된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취임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취임식

7월 31일 대회의실서 개최

양순경 이사 4대 회장 취임

"복지사회 구현위해 앞장 설 것"

이날 행사에 앞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이임하는 곽영길 회장(제3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998년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더불어 20여 년 간 제천시 사회복지사업에 혼신과 열정을 쏟았던 곽영길 회장의 명예로운 사임과 더불어 양순경 이사가 4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양순경 신임회장은 제천시여성 단체 회장, 제천시의회 3선 의원

과 부의장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양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사회복지를 통한 변화와 힘을 믿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 및 시민들의 정신과 능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겠다."라 "이로써 지역 사회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맛있는 힐링여행 함께 떠나요”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10월 1~2일 제주 힐링여행·10월 4일 맛집 여행 떠나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참가자를 모집하는 힐링 프로그램은 제주 힐링여행은 10월 1일부터 2일과 소수 직원인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를 위한 맛집 여행은 10월 4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은 "힐링 사업은 2018년 참가자의 90%이상이 매우 만족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도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종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지역 노인 구강건강 위해 ‘맞손’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시대희망복지재단-청주웰치과

충북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선별해 진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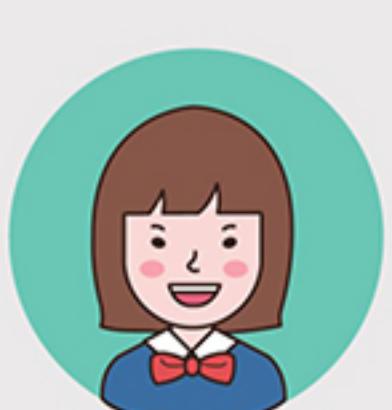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과 시대희망복지재단(이사장 양정모), 청주웰치과(대표원장 빙정호) 등 3개 기관은 16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밝은 이(teeth)세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동네 밝은 이(teeth)세상'은 충북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선별해 진료비(총 1000만원 상당)

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시대희망복지재단·청주웰치과 관계자들이 '우리동네 밝은 이(teeth)세상'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 이터베이스(DB)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다만, 각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건강수준

기대수명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3.5년 증가했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며 자살에 의한 사망률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대수명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기대수명 (2017)】

(단위: 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기대수명	81.1	82.6	84.2	82.7	78.6	75.4	80.7
남자	78.7	79.6	81.1	79.7	76.1	72.9	78.1
여자	83.4	85.6	87.3	85.7	81.1	77.9	83.4

●주관적 건강인지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국(29.5%)이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면, 호주(35.2%), 미국(37.9%), 뉴질랜드(38.2%), 캐나다(3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율 (2017)】

(단위: %)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양호	65.4	67.4	35.5	29.5	87.9	-	67.9

●사망률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십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하였으며, 치매에 의해서도 12.3명이 사망하였다.

●자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십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건강위험요인

2017년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이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흡연율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 했으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흡연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감소 추세이다.

* 한국의 남자 흡연율 : 2007년(43.0%)→2017년(31.6%)

【흡연율 (2017)】

(단위: %)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전체	18.8	17.2	17.7	17.5	10.5	7.6	16.3
남자	22.3	19.1	29.4	31.6	11.5	12.0	20.2
여자	15.3	15.5	7.2	3.5	9.5	3.6	12.7

●주류소비량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으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류 소비량 (2017)】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ℓ))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주류 소비량	10.9	11.7	7.2	8.7	8.9	4.4	8.9

주: 독일, 미국, 멕시코는 2016년 수치

-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을 겪는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의료자원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평균보다 많아 물적 자원 보유 수준은 최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병원 병상 수 증가에는 장기 요양 병상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임상 의사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

【임상 의사 수 (2017)】

(단위: 명/인구 천 명)

임상의사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임상의사수	4.3	3.2	2.4	2.3	2.6	2.4	3.4

●간호인력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간호인력 (2017)】

(단위: 명/인구 천 명)

간호인력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OECD 평균
간호인력	12.9	7.8	11.3	6.9	10.0	2.9	9.0

●병상 수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 OECD는 병원의 병상을 기준에 따라 급성기 병상(2017년 기준 58.2%), 재활 병상(0.4%), 장기요양 병상(41.2%), 기타 병상(0.3%)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병상은 정신병상을 포함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하였다.

【병원 전체 병상 수 (2017)】

(단위: 병상 수/인구 천 명)

병상 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병상 수	8.0	6.0	13.1	12.3	2.8	1.4	4.7

주: 미국은 2016년 수치

보건의료이용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전체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 급성기 치료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6.4일)에 근접하다. 특히,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7.6%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래진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평균재원일수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 (※ OECD 평균: 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의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하였다.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다소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하였으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요양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8.3%로 OECD 평균(12.5%)보다 낮았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2017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0명)보다 1.4명 적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정신건강

가장 고귀한 사랑은 나눔!!!



양순경 회장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제천시푸드뱅크 이전은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그 동안의 성과에 더욱 힘입어 지역사회의

복지구조사와 연구로 현장 여론을 꽤 넓게 수렴하여 정책수립, 반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 국내외 사회복지증시자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과 훈련으로 전인격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외롭고 고독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복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나눔이면서 생산되어지고 재창조되는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으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동푸드뱅크(해피준)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식품 및 물품을 기부 받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 약 2,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약 60개소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죽을 때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

는 읍. 면 지역의 소외계층 이웃에게 도 기부식품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찾아가는 이동식 푸드뱅크(해피준-happy準)는 오늘도 달려 가고 있습니다.

나눔은 이타적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행동입니다.

현실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으로 수혜자의 복지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사업수행과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 지원하면서 삶에 희망을 전하는 소외된 이웃지킴이 300여명의 '제천시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와 모든 직원과 함께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client)가 행복한 웃음을 웃는 그날까지 겸손히 무릎으로 섬기겠습니다.

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폴레옹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의 가치 척도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사랑'이라는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핵심가치를 위해서 민간네트워크의 구심체인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요사업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이를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client)가 행복한 웃음을 웃는 그날까지 겸손히 무릎으로 섬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이승학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똑똑.

"여기가 복지관 사무실이죠? 회원가입 하려고 왔는데요."

노랗게 물들인 머리와 깊은 선글라스를 쓴 멋쟁이 아주머니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만, 저희 복지관은 만 60세부터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관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슬그머니 꺼내어 건네주신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58년 개띠. 우리 장모님과 동갑이시다. 아, 우리 장모님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구나.

지난해 가족끼리 소박하게 지난 환갑잔치가 떠오른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회

원가입 도와드릴게요."

우리 복지관에서 노인을 칭하는 공식 호칭은 '어르신'이다.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은 이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겪는 일이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면서 '젊은 노인'이 늘고 있다.

'젊다'와 '노인'이라는 상반되는 단어가 결합된 이 역설적인 용어가 최근 노인복지현장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다.

'노인(老人)'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노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 '고지식하고 구태의연한 태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꼬부랑 할머니', '자글자글한 주름', '뽀글뽀글파마' 등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60대를 떠올려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장모님은 만 61세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운전해 영화를 보러 다니시며, 동네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요가 수업을 들으신다. 비록 머리는 하얗게 세셨지만 짧은 생머리가 잘 어울리시고, 취미는 스마트폰 게임과 혼자 떠나는 제주도 여행이다.

흔히 떠오르는 노인의 이미지와는 분명 뚜렷한 차이가 느껴진다.

1964년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쳐

음 정했을 당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약 55세였다.(한국통계연감, 1966). 50여년이 지난 2017년 평균수명은 82.69세이며, 만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으로 보내는 여생은 평균 약 23년.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3~40년을 '노인'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1세대를 30년이 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면서 '젊은 노인'이 늘고 있다.

'젊다'와 '노인'이라는 상반되는 단어가 결합된 이 역설적인 용어가 최근 노인복지현장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다.

'노인(老人)'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노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 '고지식하고 구태의연한 태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꼬부랑 할머니', '자글자글한 주름', '뽀글뽀글파마' 등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60대를 떠올려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장모님은 만 61세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관련하여 혹자는 조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가파른 복지지출 증가를 근거로 찬성하고, 혹자는 OECD 1위의 노인빈곤율과 정년 이후 소득절벽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증가를 염려해 반대하기도 한다.

노인복지관의 종사자인 필자는 노인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UN에서는 2015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수년전부터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으나, 각종 선결과제 등으로 인해 쉽사리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대수명 및 세계 각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은퇴정년을 상향하기 위한 법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출생 이후 햇수가 아닌 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은 독일에서 1889년 정립되어 130년간 유지되어온 만 65세라는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이다.

노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기고를 받습니다.

- 사회복지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활동하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s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더 이상은 참지마세요”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아주다 둔도 별고 육아도 책임지고 부인의 건강까지 쟁겨야 하는 마당의 삶을 사느라 지친 남편, 금지옥엽 키우며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는데 사춘기가 되어서는 공부도 안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며 말리는 부모에게 욕하고 대드는 아이를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진 엄마. 이 모두는 참아주다 병이 난 사람이며 피해자들입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뒷바라지 하다가 병이 났으니 가족이 원망스럽습니다. 병이 나고서야 다른 가족들도 눈치를 보고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미 병을 염기에 그들이 변하는 것은 새발의 피요, 벼룩의 간입니다. 게다가 행동을 바꾸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잘 낫지도 않죠. 환경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참다가 병이 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은 하라는 것입니다. 화도 좀 내고 자기 표현을 하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기표현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만큼 나의 욕구도 중요하고, 나의 욕구만큼 다른 사람의 욕구도 존중하는 것이 배려요 태협입니다. 갈등 상황을 통해 우리는 배려와 태협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너무 참아주면 상대방은 그런 배움의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위에서 예시로 제시한 3명의 가해자들은 부인, 남편, 엄마에게만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도 무례할 것이고,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고 귀찮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며, 아이는 사람들의 떠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참고 있는 독자들이여~~ 참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픈 게 싫어서 그냥 피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착한 역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참아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적당히 참고 너무 많이 참지 마세요. 버틸 수 있으면 좀 버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참지는 마세요.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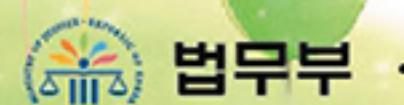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명인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4-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웠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아 이를 그냥 가지고 내렸는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어 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발견한 돈이나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에서 직원의 실수나 악으로 거스름돈 등을 더 받은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줍는 경우 유실물이 점유이탈물인지 또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훔친 물건은 본래 주인의 점유에서는 벗어났지만 버스기사가 버스 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새롭게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훔친 물건과 달리 버스나 기차 등의 이동수단에서 훔친 물건은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물건을 훔친 것과 같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복지정보 제공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저소득층으로 환아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 hope@hopeon.or.kr
- 참고 : <https://www.bokji.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9년 '온둔환자 의료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 전국 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 화상, 고도비만, 기형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대상자
- 지원내용 :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건강 치료, 사회복귀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별첨 문서 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 수시 진행(매월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진행 예정)
- 기타
 - 별첨문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swc.or.kr) 복지정보-사회복지소식에서 다운로드
 - 문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담당(전화: 070-7017-6623)

[신한금융그룹] 위기기정 재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후원처 : 신한금융그룹
- 사업지원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 신청방법 :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 * 신청기관 :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위기기정 재기지원 사업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 www.shinhanihope.com

- [KT&G복지재단] 2019년 상상펀드의료비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 저소득)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온라인모금액을 수여·전자·클링그림찾기 게임 접수후원액과 합산하여 지원되며, 최대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됨.
 - 신청방법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기준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참고 :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년 지역복지현안사업 '배분의제별 사례발굴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12월
 - 사업대상 : 전국 사회복지관
 - 사례별 지원금액 : 사례대상자별 1백만원

- 지원대상 : 배분의제별(빈곤, 질병, 소외)로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또는 가족)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참조(<http://cb.chest.or.kr>)
 - 사례지원대상자 추천 기한 : 2019년 11월 29일(금)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접수 (cbchest@hanmail.net)
 - 참고 : <http://cb.chest.or.kr>

자원봉사자 모집

▶ 캠페인 행사 보조

관리센터 :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31-2676

▶ 구연동화 및 일벗상담

관리센터 : 충북복지연합요양원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35-6988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VIP요양원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53-9988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16-3060

▶ 경로식당 봉사

관리센터 : 충주시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724-3345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857-5960

▶ 업무보조

관리센터 :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67-4590

▶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8.1 ~ 9.30
전화번호 : 043-250-1226

*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누리재능기부복지회, 문화·예술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기) 소속 누리재능기부복지회(단장 김금자)는 지난 8월 7일 (수) 청주시에 위치한 베스트케어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누리재능기부복지회는 2018년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매주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김금자 단장은 "봉사자들의 전문적인 재능으로 어르신들과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 (cpcsww@chol.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1인 사업자 엄마도, 프리랜서 엄마도

이제부터 출산급여챙기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moel.go.kr)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 지원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복/지/만/평

복지부동

이창신 www.bokmani.com



너무 자주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